



다시 찾아 온 5월 ... 불 밝힌 5·18 민주광장 분수대

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 분수대에 수중조명이 켜지며 오월 광주의 밤을 밝히고 있다. 5·18주간과 여름철을 맞아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간 분수대는 오는 10월까지 시원한 물줄기를 선보인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문대통령 광주·전남 대선공약 '순항'

취임 2년 ... 35개 중 미래 먹거리 현안 사업 차질없이 진행
한전공대·광주형 일자리·스마트 팜 등 목표 달성 무난할 듯

오는 10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의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 사업은 모두 35개(광주 24·전남 11)다. 이 가운데 한전공대 설립, 스마트 팜 조성, 광주형일자리 선도모델, 수소산업 등 광주·전남 미래 먹거리인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순항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정부 출범 2년 만에 광주·전남 대선 공약 사업 국고 반영률이 60%를 넘어선 등 앞서 이명박 정부(40%)와 박근혜 정부(10%)의 임기말 공약 이행률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은 신속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한 5·18 정신의 현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는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인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광주=문 대통령은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24개 공약, 32개의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총 사업비만 6조7406억원이다. 주요

공약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에너지밸리 국가 에너지 신산업 거점화 추진 ▲광주 친환경차 안전연구원 설립 ▲수소산업 허브도시 조성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창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 시대 선언 등이다.
이 가운데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꼽히는 친환경 자동차와 수소산업, 광주형 일자리, 인공지능(AI) 중심 창업단지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은 정부 국비 지원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또한, 과거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공약 사업도 올해 광주 솔로몬파크 건립 사업 국비 22억원을 확보하면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5대 문화권 조성사업 관련 국비도 올해 각각 536억원과 185억원 등을 확보해 사업이 본격 도에 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

축과 군공항 이전 사업 국가 지원, 전장부품 산업기반 조성, CT연구원 국책기관 설립 사업 등은 올해 국비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전남도는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청와대·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공약사업이 중복되는 데다, 일반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엔 공약에서 제외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전남에 11개 공약·31개 세부공약·51개 개별사업을 약속한 바 있다. 대표적인 공약은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서남해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 산업 지원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국가 생물의약 집적단지 조성 등이다.
51개 개별사업 가운데 요트 전문 해양레저 장비산업 육성, 부산-목포 해안관광도로 건설, 목포크루즈항 개발 등 환경해권 관광휴양거점 육성 등 8개 사업이 부처 이행계획에 누락돼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

단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지역균형위 등 과 협의를 거쳐 해양항만 관련 공공기관 추가 이전, 수산양식 가공산업 선도지역 육성 등의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정비하기로 했다.
이들 51개 개별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 10조6199억원, 지방비 7140억원, 민간자본 7조1142억원 등 모두 18조4481억원이다. 올해 전남도는 29개 사업(사업비 2244억원)을 건의했으나 20개 사업(1475억원)이 반영돼 반영률은 65.7%로 나타났다. 주요 예산 반영사업은 호남고속철 2단계(660억원),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5억원), 해경 서부정비창(28억원), 중소형선박공동건조시설 구축(60억원), 이순신 호국관광벨트(49억원)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조정이 되겠지만, 큰 폭의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공약의 이행 여부를 기간, 분야, 부처, 사전이행절차 등으로 분류해 꼼꼼히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농민수당' 탄력

복지부, 화순·함평·해남·강진 추진 요청에 긍정 답변

전남지역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농민수당' 제도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면서 시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화순을 비롯한, 함평·해남·강진 등 4개 시·군이 농민수당 추진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것 <광주일보 4월 11일 2면>과 관련,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오는 3일께 해당 시·군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화순과 함평, 해남, 강진 순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것"이라며 "다만, 시·군별 추진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대 조건에는 지자체 재

정, 사업 추진 과정의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농민수당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전남도가 최근 비슷한 내용으로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가칭)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역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100만원 수준의 농민수당을 도내 모든 농업인 또는 어업인(전남 35만9000명)에게 지급할지, 농가 또는 어가(전남 16만5300가구)에만 지급할지, 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어업인 등으로 지급 대상을 규정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농민수당을 추진해 온 4개 시·군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여부를 지켜보며 사업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오는 7월께 농민수당에 대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급 대상과 지급 액수, 지급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조례안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 내년부터 전 시·군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세계수영 마스터즈 열기 뜨겁다 4월까지 64개국 3200여명 참가 신청

'2019 광주세계수영 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이하 마스터즈 대회)에 전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참가 열기가 뜨겁다.
<관련기사 5면>
1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까지 마스터즈 대회 참가 신청을 등록한 인원은 전 세계 64개국에서 3200여명을 넘어섰으며, 지금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신청은 6월 24일까지이며, 조직위는 90개국 8000명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위는 현재 국내 수영 동호인들도 1000여명 가량이 참가 방법을 문의해옴에 따라 이달까지 500여 명이상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스터즈 대회 참가 신청은 국제수영연맹 참가등록 웹사이트(FINA GMS, https://registration.fina.org)에서 가능하다. 참가자에게는 아시아나 항공 국제선 40% 할인, 대회 기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 문화예술공연 관람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조직위는 국내외 수영연맹 및 수영 동호회 관계자에게 참가를 독려하는 한편, 전 세계 25개국 26명의 마스터즈 홍보대사를 활용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스터즈 대회는 순수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국제수영대회다. 올해 광주수영대회에서는 7월 12~28일 선수권대회가 열리고, 1주일 뒤인 8월 5~18일 마스터즈 대회가 개최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소문동)
수암 서비스센터 (062)936-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림대로 520(수암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중: 7.2t), 복합회합용도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